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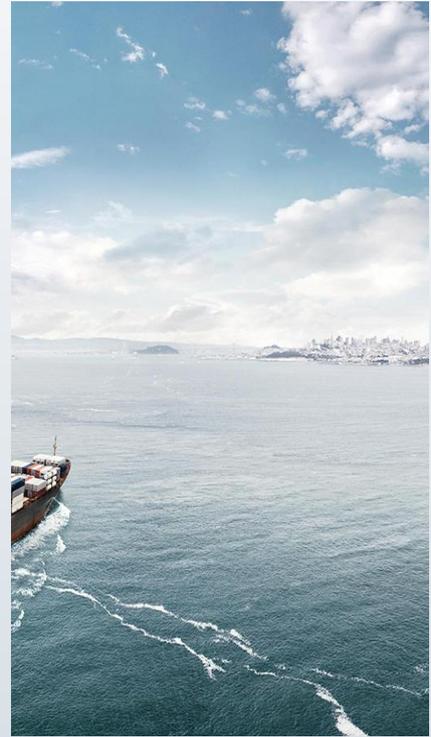


# STL MARKET REPORT

## Weekly Focus No.210

Updated July 31, 2018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 Contents

Issue & Trend	1
Bulk Carrier	6
- BC Sales Report	
Tankers	10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4
Key Indicators	17
Contact Information	19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I . ISSUE & TREND

### 1. 해양진흥공사, 중소선사 10 곳 선박지원...해운 재건사업 '시동'

국내 해운 산업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5일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첫 사업으로 중소선사에 대한 선박 지원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29일 중소선사 10 곳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이들 선사에 선박 'S&LB'(Sale and Lease Back) 지원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S&LB는 선사의 선박을 인수(매입)한 뒤 선사에 재용선 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검토 대상은 대보인터내셔널쉬핑(벌크·8만 1,399DWT), 하나로해운(벌크·7만 1,535DWT), 지엔에스해운(벌크·6만 8,591DWT), 디엠쉬핑(탱커·1만 9,998DWT), 동아탱커(탱커·1만 2,922DWT), 인피세스해운(탱커·1만 3,081DWT), 이스턴탱커(탱커·9,055DWT), 우진선박(탱커·8,522DWT), 영창기업사(탱커·6,757DWT), 천경해운(컨테이너선·1,009TEU) 등이다.

해수부는 공사 설립 직전 S&LB 수요 조사를 통해 총 11개 선사가 18척에 대한 S&LB 사업 수요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 신청을 받았다. 공사가 내부 심사를 거쳐 10개사(10척)의 총 740억원 규모 S&LB 지원 사업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를 각 선사에 통보했다. 앞선 수요 조사에서는 선사 19곳이 선박 56척에 대한 신조 수요가 있는 것을 파악, 현재 기초 검토를 하고 있다. 향후 해당 선사의 선박 발주가 있을 경우 보증 등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고 선사와 세부 계약 내용 조율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투자 실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사는 신조, S&LB 등을 통한 선박 확보 지원뿐 아니라 터미널 투자·금융, 해운거래 관리, 친환경 선박 대체, 국가필수해운제도, 한국해운연합 등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에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10개 중소선사는 공사 지원으로 기존과 비교해 금리 인하, 만기 연장 등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공사를 통해 중소선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 올 상반기 전세계 신조선 투자 총 282억달러

지난 23일 영국 클락슨에 따르면 올 상반기 441척의 선박 발주에 282억달러가 투자된 것으로 집계됐다. 선종별로는 LNG 선이 크루즈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자금이 투자됐다. 올 상반기 24척의 LNG 선이 발주되는데 41억달러가 투자됐으며, 이는 가스선(LNG 선 41억불, LPG 선 8억불) 투자금액 49억달러의

## I . ISSUE & TREND

약 84%를 차지한다. 특히 지난 2016 년(19 억달러)의 두 배 이상의 자금이 투자되어 올해 LNG 선 투자액은 이미 지난해 연간투자액(29 억달러) 역시 넘어섰다.

국가별 발주금액에서는 유럽이 122 억달러(191 척)로 글로벌 1 위 자리에 올랐다. 지난달 한국 조선업계에 3 척의 LNG 선을 발주하는데 6 억달러를 투자한 그리스가 유럽국가 중 가장 많은 자금을 선박 발주에 투자했다. 같은 기간 이탈리아 선주사가 중국 조선업계에 20 척 이상의 일반 화물선 및 로로선(ro-ro, 자동차·컨테이너운반선)을 발주하면서 6 억달러의 자금을 투자한 점을 감안하면 LNG 선이 그만큼 고부가가치 선박임을 증명하는 셈이다.

유럽에 이어 아시아국가가 선박 투자 2 위에 올랐다. 아시아 내에서는 33 억달러를 투자한 일본이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자했다. 6 월 한 달간 일본은 5 척의 MR 탱커를 비롯해 4 척의 피더 컨테이너선, 2 척의 벌크선을 발주했다. 중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6 억달러의 자금을 선박 발주에 투자했다. 한국은 13 억달러를 투자한 가운데 현대상선이 한국에 최대 20 척의 컨테이너선 발주를 추진하고 있어, 클락슨에 선박 투자실적이 잡힐 경우 한국은 아시아 최대 선박 투자국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3. 북극권 해운·물류분야 진출...해수부, 북극권 비즈니스 강화하기로

해양수산부가 27 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북극에 대한 향후 5 년간의 추진전략인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해수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등 8 개 정부기관이 참여해 마련됐다.

'북극의 미래와 기회를 여는 극지 선도국가'라는 비전으로 마련된 이번 계획은 △북극권과 상생하는 경제협력 성과 창출 △책임있는 옵서버로서 북극 파트너십 구축 △인류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활동 강화 △북극정책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의 4 대 전략을 2022 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북극권과 상생하는 경제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 신북방정책의 '9 개 다리'(9-Bridge) 협력을 북극권까지 넓혀 북극항로 등 해운·물류에도 진출해 북극권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9 개 다리는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 개 분야 산업분야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북극 LNG-2 프로젝트 협력, 물리탐사연구선 '탐해 3 호' 건조 등 북극권 에너지·자원 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 I . ISSUE & TREND

'책임있는 오피버로서 북극 파트너십 구축' 전략으로는 북극권의 핵심적인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 현재까지 추진된 4 개의 북극이사회 협력과제를 2022년에는 10 개로 늘리고, 북극권 국가와의 양자협력을 기존 6 개국에서 이사회 8 개 회원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행사인 '북극협력주간'(매년 12 월 개최)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상시사무국 설치도 추진한다.

'인류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활동 강화' 전략으로는 북극해 환경변화 통합관측 시스템을 구축해 북극 환경 관측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극지예측시스템을 구축해 기후전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국, 일본과 함께 동북아 기후변화 영향조사 연구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북극정책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하고, 이와 연계해 남·북극의 과학연구, 환경보호, 인력양성, 산업 육성을 포괄하는 '극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극지과학 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간 극지전문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북극연구 관련 30 개 산학연 기관으로 구성된 '북극연구 컨소시엄' 북극정책 싱크탱크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북극 현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여 국가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권 경제진출 증진으로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승환 해양정책실장은 "북극은 우리의 과학영토와 경제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반드시 개척해 나가야 하는 공간"이라며 "극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4.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이란 제재, 리알화 폭락.. 국제유가도 지속적인 상승세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일(다음달 6 일)을 앞두고 벌써부터 제재 위력이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주 비공식 외환시장에서 이란의 리알화 환율은 28 일(현지시각) 1 달러당 9 만 7,500 리알에서 29 일에는 10 만 8,500~11 만 6,000 리알로 치솟았다. 하루 만에 환율이 13.4% 치솟으면서 통화가치도 급락했다.

11 월에는 달러화 자금줄인 원유수출도 막을 예정이어서 리알화 환율은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 이란의 경제 성장률은 1.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미국과 이란이



## I . ISSUE & TREND

갈등이 심화돼 군사적 충돌까지 갈 경우 오일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러시아가 OPEC 와의 감산합의를 깨고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 ◆ 미국-EU 대립으로 번지는 이란 핵합의

달러화 대비 이란 리알화 환율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를 탈퇴를 선언한 5월 8일 이후 74% 상승한 셈이다. 또 올해 초와 비교하면 158%나 상승했다. 문제는 오는 11월부터 원유·천연가스 수출 제재도 예고하고 있어서 이란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동시에 제재를 가했던 2012년 이란의 가치는 한 달여 만에 3분의 1로 폭락했고, 당시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출을 제재하면서 이란 경제가 급격하게 악화된 바 있다.

그러나 그 때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 우선 유럽이 미국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이란과 거래하는 유럽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의지를 밝혔고, 미국은 이란에서 활동 중인 유럽기업에 대한 제재를 면제해 달라는 유럽국가들의 요청도 거절했다. 그러자 프랑스 영국, 독일 정부가 이란 핵합의를 유지시키기 위해 미 달러화에 독립적인 금융채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중앙은행들이 유로화·파운드화 또는 다른 통화로 거래되는 이란 중앙은행 계좌를 활성화하거나, 수년간 휴면상태였던 계좌들을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다. 이를 통해 이란이 쉽게 원유수출 수익을 자국으로 보내게 하거나 이란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예비 부품과 같은 중요한 제품을 유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 공화당의원들은 유럽 주요 국가들에 편지를 보내 "우리는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제재에 따를 것을 요청하며, 미국의 제재 결정을 회피하거나 훼손하려 할 경우에는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을 경고"한다고 위협했다.

### ◆ 미, 아랍판 나토(NATO), '중동전략동맹(MESA)' 설립할 듯

미국이 이란 핵협정에 탈퇴하면서 미국과 이란은 말 폭탄을 던지며 서로 위협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지난 22일 자국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미국을 겨냥해 "사자의 꼬리를 갖고 놀지 말라, 그건 후회를 가져올 뿐", "이란과의 평화는 모든 최선의 평화가 될 것이며, 이란과의 전쟁은 모든 전쟁의 어머니 같은 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란 정부는 "현재 많은 해협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으며 봉쇄할 수 있는 해협도 많다"면서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으면 호르무즈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겠다고 위협했다.

전 세계 바닷길로 유통되는 원유의 3분의 1이 이곳을 지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세계 원유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이란은 미국과 갈등을 빚을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협박하곤 했다. 물론 실행된 적은 없다.



## I . ISSUE & TREND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맞아아쳤고, 전쟁도 불사할 듯 서로를 위협하고 나섰다. 미국은 더 나아가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안보 동맹인 이른바 ‘아랍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설립에 나섰다. 로이터 통신이 28 일(현지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 백악관이 걸프협력회의의 6 개 회원국 및 이집트·요르단과 함께 ‘중동전략동맹(MESA)’이란 이름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 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GCC 는 오는 10 월 11 일 ~13 일 워싱턴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위한 정상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는 “MESA 는 이란의 공격과 테러, 극단주의 대한 방어벽이 되고, 중동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듯 이란 핵협정을 두고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 서로 대립적인 양상을 띠기도 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가 짜여지고 있다.

### ◆ 국제유가는 어떻게 움직이나...4 주 연속 최고치 갱신

문제는 국가유가다. 지난 주간 우리나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4 주째 상승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9 주째 1,600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원유 및 휘발유 재고 감소뿐만 아니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루티 반군이 사우디의 원유 소송로인 바브알만다브해협에서 사우디 유조선 두 척을 공격하는 바람에 이곳을 통한 원유 수송을 잠정 중단해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2 년 전만 해도 배럴당 25 달러대였던 유가가 어느새 60 달러대 후반에서 70 달러 대를 바라보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석유애널리스트이자 에너지 헤지펀드 어켄캐피털의 파트너 존 킬더프는 이란의 석유 금수가 시작되면 유가는 배럴당 90 달러대 이를 것이고,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 유가가 배럴당 200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다행인 것은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합의한 증산규모보다 더 많은 석유생산을 예고하면서 OPEC 와 러시아 등 비 OPEC 산유국들이 맺었던 감산 체제가 사실상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협박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욱 압박 받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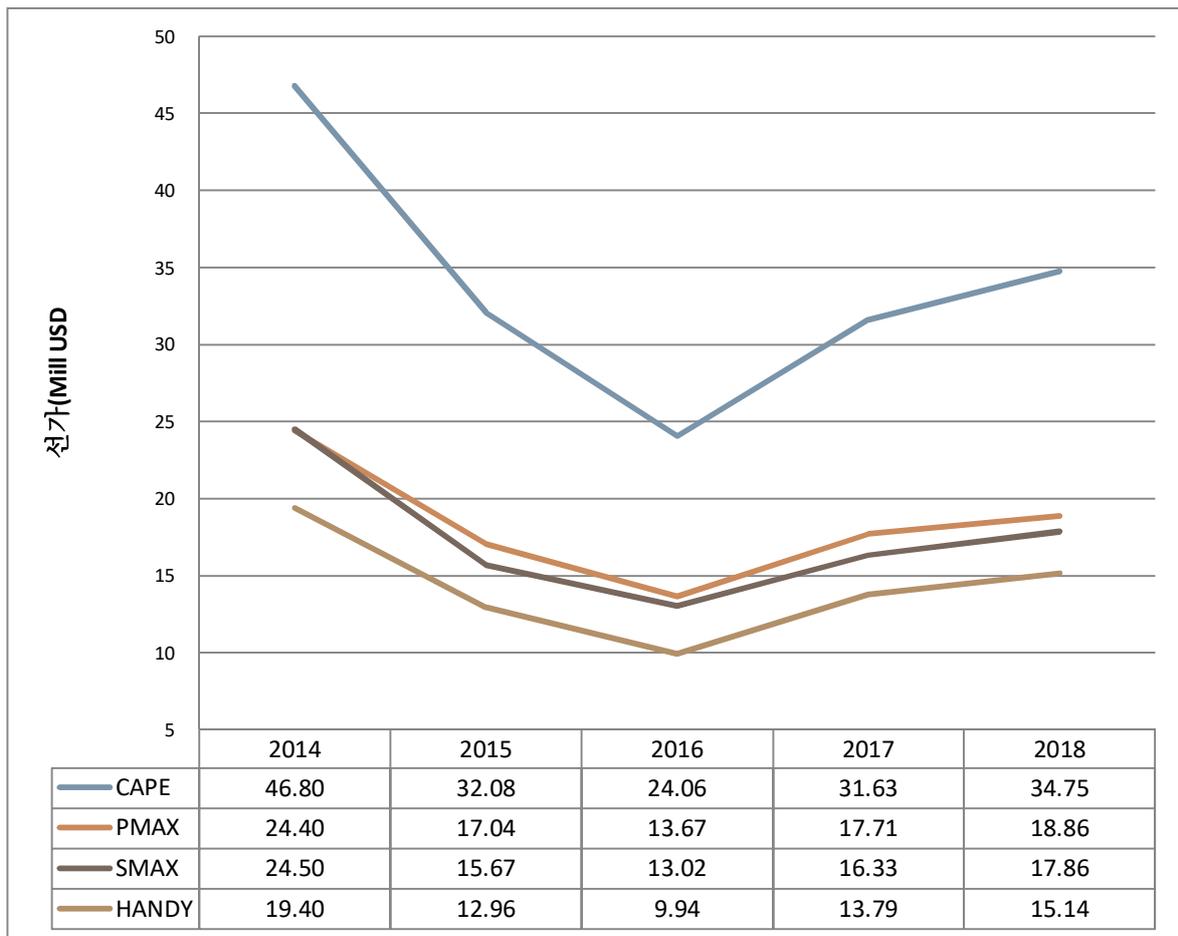
##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4	2015	2016	2017	2018
<b>Capesize 180K</b>	46.80	32.08	24.06	31.63	34.75
	28.81%	-31.45%	-24.99%	31.43%	9.88%
<b>Panamax 76K</b>	24.40	17.04	13.67	17.71	18.86
	13.27%	-30.16%	-19.80%	29.57%	6.49%
<b>Supramax 56K</b>	24.50	15.67	13.02	16.33	17.86
	14.84%	-36.04%	-16.91%	25.44%	9.33%
<b>Handysize 32K</b>	19.40	12.96	9.94	13.79	15.14
	9.04%	-33.20%	-23.32%	38.78%	9.80%

###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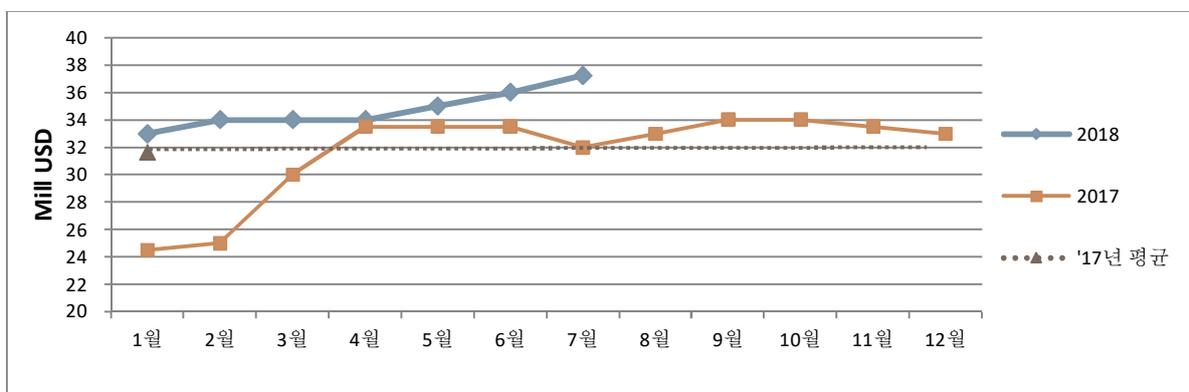




## II . BULK CARRIER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평균	
2018	CAPE 180k	선가	33.00	34.00	34.00	34.00	35.00	36.00	37.25			34.75
		전월대비	0.0%	3.0%	0.0%	0.0%	2.9%	2.9%	3.5%			-
		전년대비	34.7%	36.0%	13.3%	1.5%	4.5%	7.5%	16.4%			9.9%
	PMAx 76k	선가	18.50	18.50	19.00	19.00	19.00	19.00	19.00			18.86
		전월대비	0.0%	0.0%	2.7%	0.0%	0.0%	0.0%	0.0%			-
		전년대비	27.6%	19.4%	8.6%	2.7%	2.7%	5.6%	5.6%			6.5%
	SMAx 56k	선가	17.50	17.50	18.00	18.00	18.00	18.00	18.00			17.86
		전월대비	0.0%	0.0%	2.9%	0.0%	0.0%	0.0%	0.0%			-
		전년대비	20.7%	16.7%	12.5%	5.9%	5.9%	9.1%	9.1%			9.3%
	HANDY 32k	선가	14.00	14.00	15.00	15.50	15.50	16.00	16.00			15.14
		전월대비	0.0%	0.0%	7.1%	3.3%	0.0%	3.2%	3.2%			-
		전년대비	7.7%	3.7%	11.1%	10.7%	10.7%	14.3%	14.3%			9.8%
2017	CAPE	24.50	25.00	30.00	33.50	33.50	33.50	32.00	33.00	34.00	31.63	
	PMAx	14.50	15.50	17.50	18.50	18.50	18.00	18.00	18.50	18.50	17.71	
	SMAx	14.50	15.00	16.00	17.00	17.00	16.50	16.00	16.25	16.25	16.33	
	HANDY	13.00	13.50	13.5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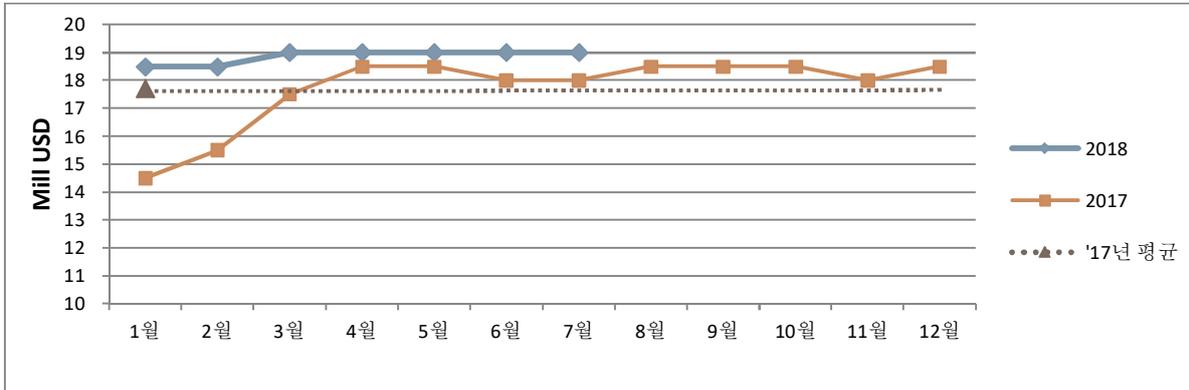
###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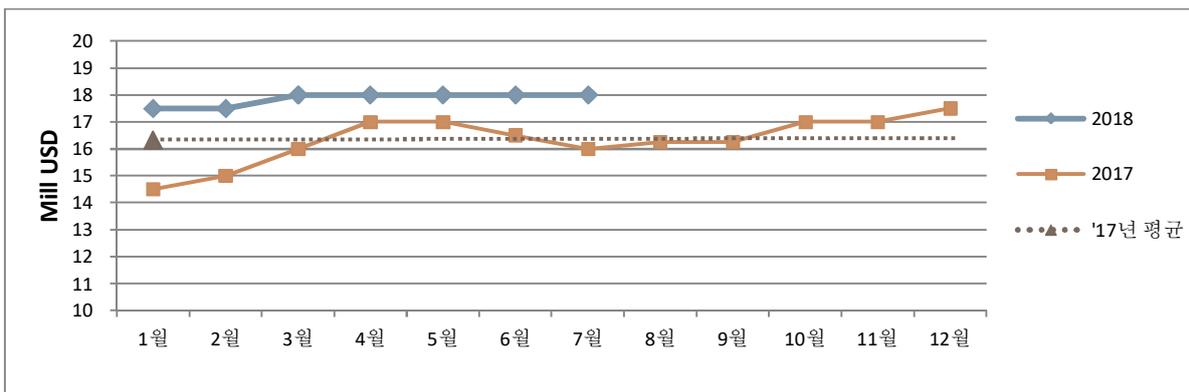


## II.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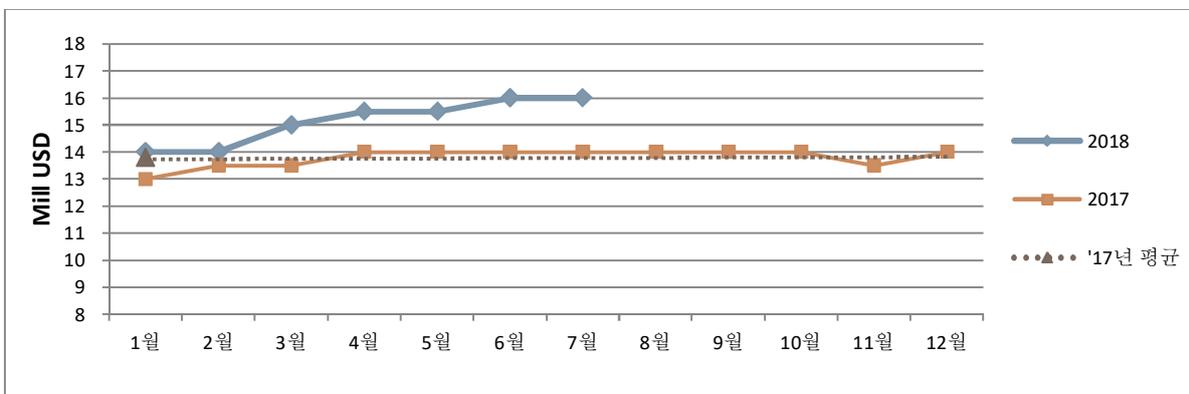
### □ Panamax



### □ Supramax



### □ Handy





## II . BULK CARRIER

### III-1.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YZJ2015-2171	180,000	2020-1q	CHINA			50	S.Korean buyer (Sinokor), scrubber fitted
BC	YZJ2015-2170	180,000	2019-4q	CHINA			50	
BC	YZJ2015-2169	180,000	2019-1q	CHINA			50	
BC	STELLA CHARLENE	176,357	2012	CHINA	B&W			S.Korean buyer (Sinokor)
BC	STELLA FLORA	176,292	2012	CHINA	B&W		105	
BC	STELLA ANNABEL	180,337	2011	CHINA	B&W			
BC	STELLA ANITA	180,335	2012	CHINA	B&W			
BC	BBG AMBITION	82,191	2009	CHINA (JPN)	B&W		16.5	Greek buyer (A.M. Nomikos)
BC	DUBAI STAR	75,253	2001	KOREA	B&W		8.2	Chinese buyer, dd due Aug '18
BC	TAI PROFIT	73,105	2001	JAPAN	SULZ		8	Chinese buyer
BC	TSCHAIKOWSKY	58,790	2008	PHILIPPINES(JAP)	B&W	C 4x30t	14	Undisclosed buyer
BC	JIN LI	50,777	2001	JAPAN	SULZ	C 4x30t	8.6	Chinese buyers (Zhejiang Fuxing Shipping)
BC	ORIENT DELIVERY	36,887	2012	KOREA	B&W	C 4x30t	14	Indonesian buyers (Waru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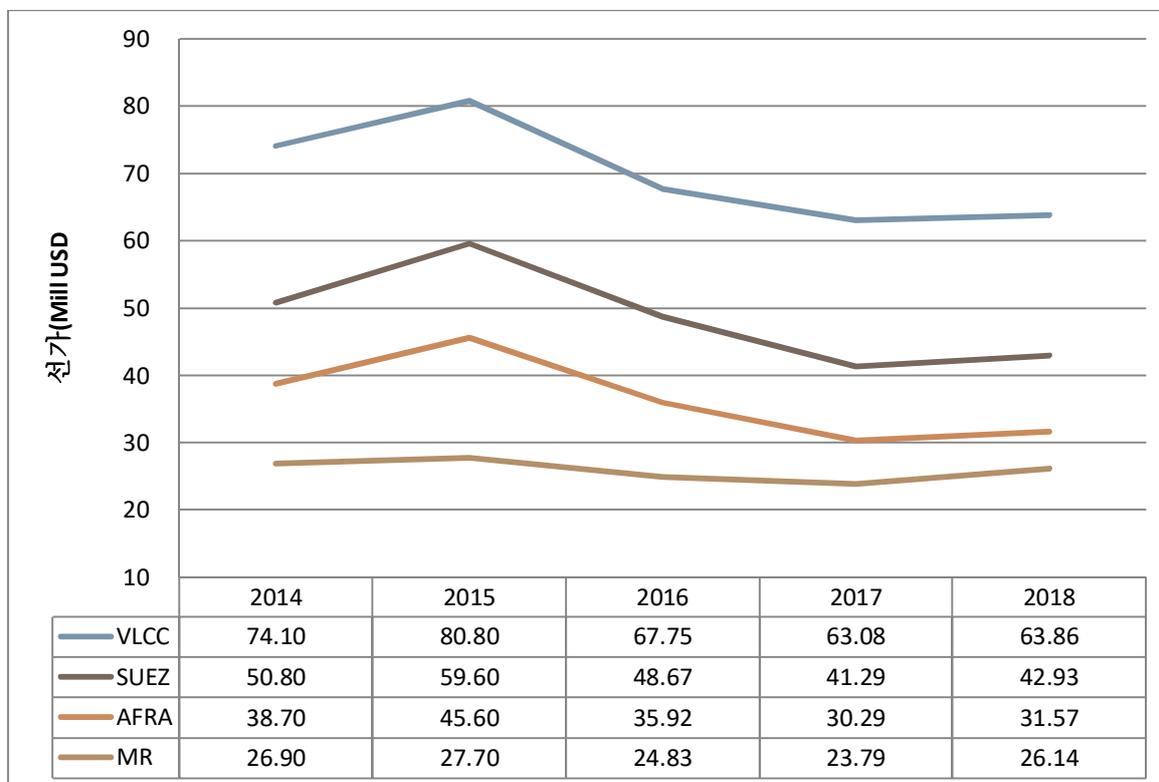
##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VLCC 310K	74.10	80.80	67.75	63.08	63.86
	31.93%	9.04%	-16.15%	-6.89%	1.23%
Suezmax 160K	50.80	59.60	48.67	41.29	42.93
	27.00%	17.32%	-18.34%	-15.15%	3.96%
Aframax 105K	38.70	45.60	35.92	30.29	31.57
	33.45%	17.83%	-21.24%	-15.66%	4.22%
MR 47K	26.90	27.70	24.83	23.79	26.14
	2.48%	2.97%	-10.35%	-4.19%	9.88%
Chemical Tanker IMO II 13K	13.00	12.60	13.92	12.42	12.14
	8.90%	-3.08%	10.45%	-10.78%	-2.21%

###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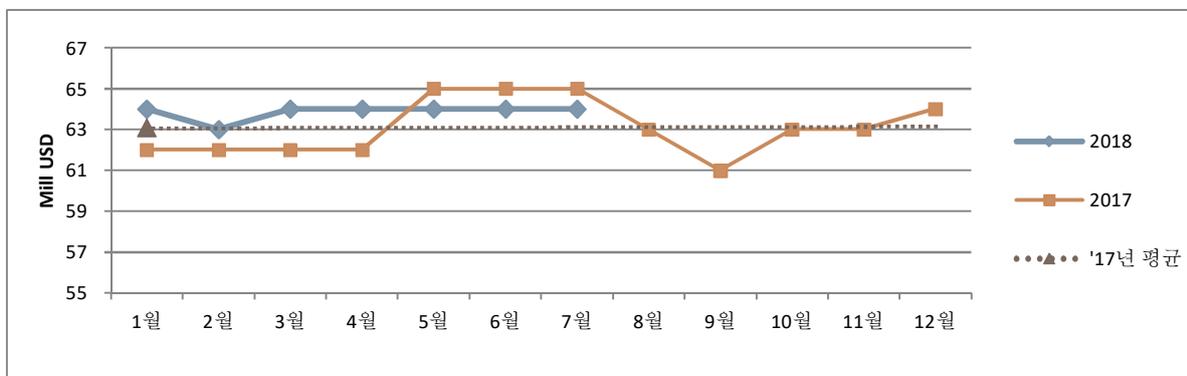




## III. TANKER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평균	
2018	VLCC 310K	선가	64.00	63.00	64.00	64.00	64.00	64.00	64.00			63.86
		전월대비	0.0%	-1.6%	1.6%	0.0%	0.0%	0.0%	0.0%			-
		전년대비	3.2%	1.6%	3.2%	3.2%	-1.5%	-1.5%	-1.5%			1.2%
	SUEZ 160K	선가	42.00	42.00	42.50	43.50	43.50	43.50	43.50			42.93
		전월대비	-2.3%	0.0%	1.2%	2.4%	0.0%	0.0%	0.0%			-
		전년대비	2.4%	2.4%	6.3%	3.6%	2.4%	-1.1%	1.2%			4.0%
	AFR A 105K	선가	32.00	30.00	31.00	32.00	32.00	32.00	32.00			31.57
		전월대비	0.0%	-6.3%	3.3%	3.2%	0.0%	0.0%	0.0%			-
		전년대비	6.7%	0.0%	8.8%	6.7%	3.2%	3.2%	3.2%			4.2%
	MR 47K	선가	25.00	25.00	26.00	26.50	26.75	26.75	26.75			26.14
		전월대비	0.0%	0.0%	4.0%	1.9%	0.0%	0.0%	0.0%			-
		전년대비	11.1%	11.1%	15.6%	10.4%	7.0%	7.0%	11.5%			9.9%
CHE M IMO 2 13K	선가	13.00	12.50	12.50	12.25	11.75	11.50	11.50			12.14	
	전월대비	0.0%	-3.8%	0.0%	-2.0%	-4.1%	-2.1%	0.0%			-	
	전년대비	6.1%	4.2%	-2.0%	-2.0%	-7.8%	-8.0%	-8.0%			-2.2%	
2017	VLCC	62.00	62.00	62.00	62.00	65.00	65.00	65.00	63.00	61.00	63.08	
	SUEZ	41.00	41.00	40.00	42.00	42.50	44.00	43.00	40.00	39.00	41.29	
	AFRA	30.00	30.00	28.50	30.00	31.00	31.00	31.00	30.00	30.00	30.29	
	MR	22.50	22.50	22.50	24.00	25.00	25.00	24.00	23.50	23.50	23.79	
	CHEM	12.25	12.00	12.75	12.50	12.75	12.50	12.50	12.75	12.00	1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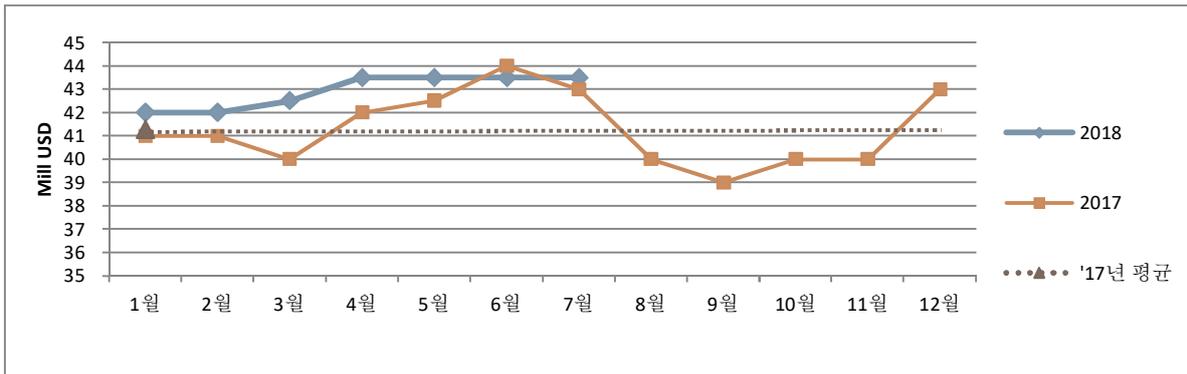
###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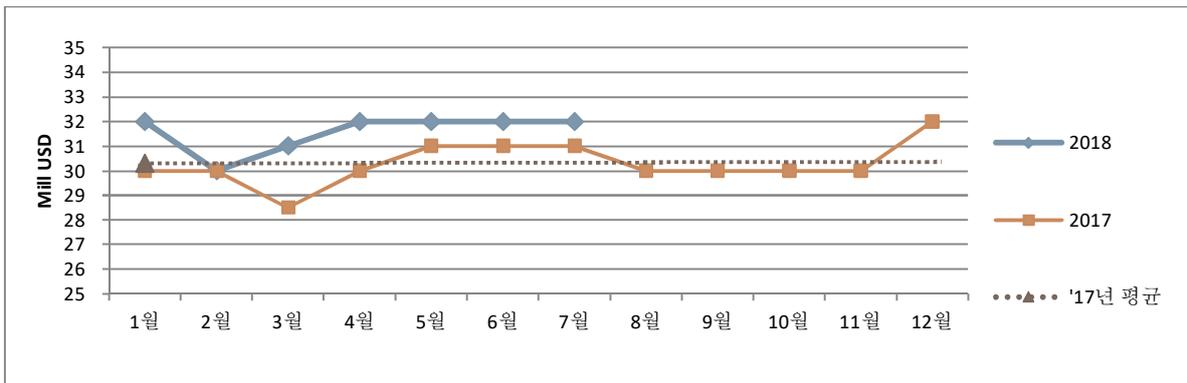


###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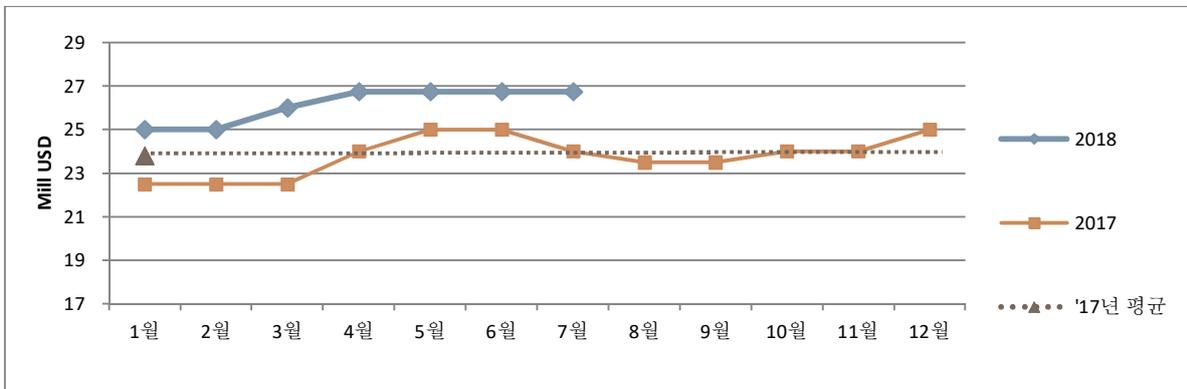
#### □ SUEZMAX-160K



#### □ AFRAMAX-105K



#### □ MR-47K





## III. TANKER

### IV-1. Tanker Sales Reported

####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NICHIOH	303,994	2004	JAPAN	B&W		23.5	Greek buyer
TANKER	GLORIC	298,522	2006	JAPAN	B&W		33	Singapore buyer
TANKER	SYMPHONIC	298,522	2006	JAPAN	B&W		33	
TANKER	LAIMA	37,337	2003	KOREA	B&W		8.5	Indonesian buyer (Soechi)

#### 2)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PATRAIKOS	51532	2010	KOREA	WART	4498		15.1	Undisclosed buyer
CONT	WINCHESTER STRAIT	22927	2012	CHINA	B&W	1740	TEU	13.9	Norwegian buyer (MPC Containers)
CONT	SINAR BATAM	17224	1998	JAPAN	MITSU	1157	TEU	6	Indonesian buyers (Asian Bulk Logistic)
MPP	CLIPPER NEWARK	17299	2011	CHINA	B&W	904	TEU	9.5	German buyer, Heavylifters
MPP	CLIPPER NEWHAVEN	17299	2011	CHINA	B&W	904	TEU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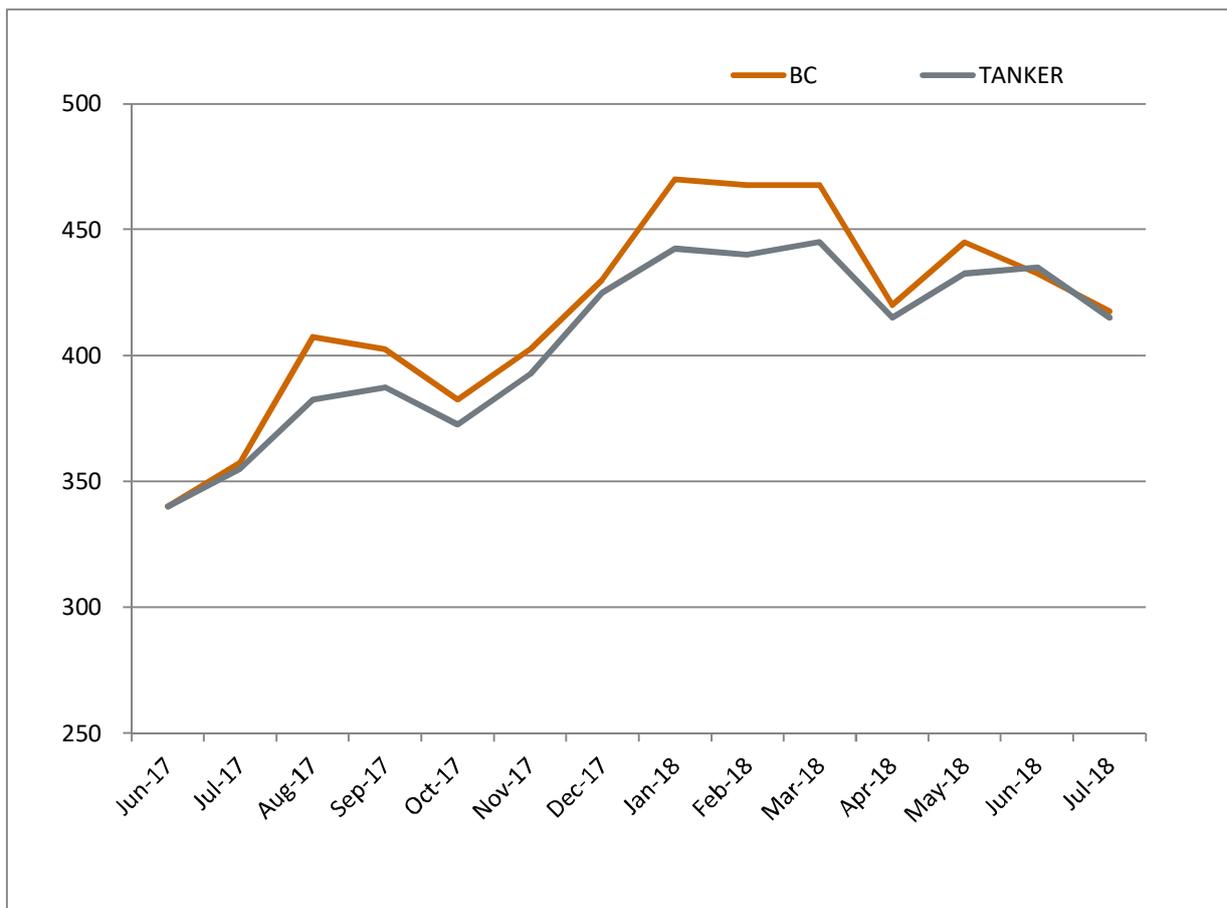


## IV. DEMOLITION

### 1) 선가

해체선가 (US\$/LDT)	2016 평균		2017 평균		2018 평균		2017 년 7 월	2018 년 7 월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월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265.63	-22.1%	365.21	37.5%	432.14	18.3%	355.00	415.00	-4.6%	16.9%
BC	267.71	-20.5%	370.83	38.5%	445.71	20.2%	357.50	417.50	-3.5%	16.8%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USD/LDT), 증감율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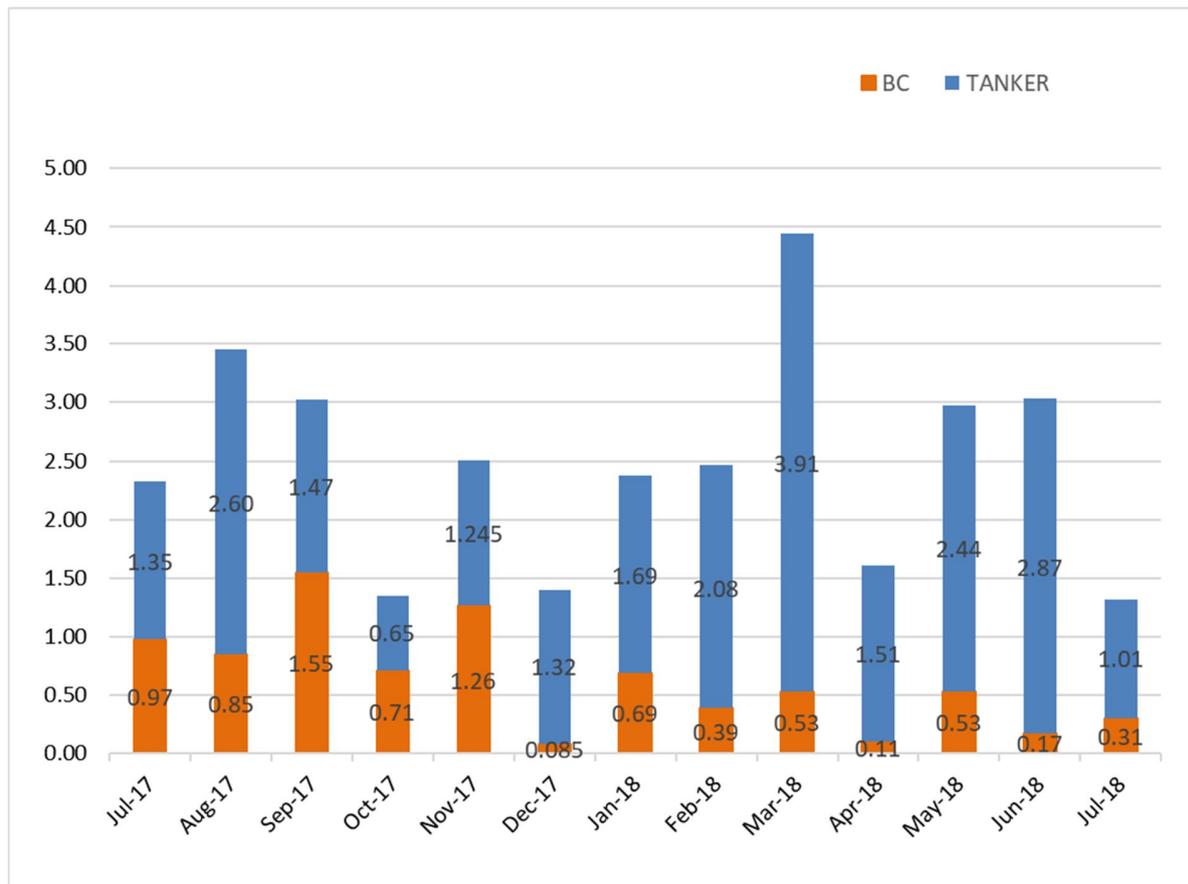


## IV. DEMOLITION

### 2) 해체선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7 년		2018 년 누적				2017 년 7 월		2018 년 7 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율 (전년대비)	No.	누적율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율 (전년대비)	No.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11.47	113	15.51	135.2%	131	115.9%	1.35	9	1.01	-25.1%	13	44.4%
BC	11.74	292	2.71	23.1%	68	23.3%	0.97	27	0.31	-68.7%	5	-81.5%

###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 IV. DEMOLITION

### V-1.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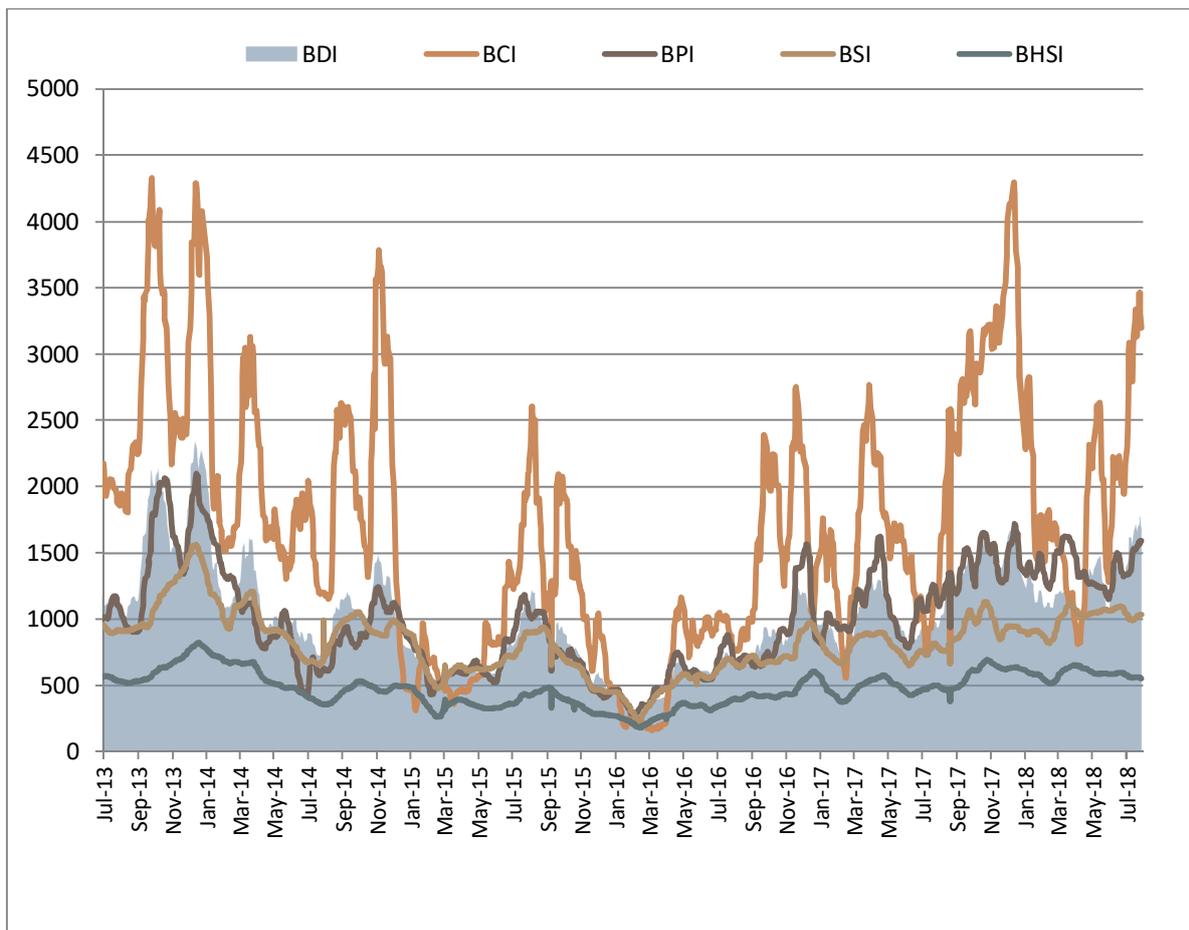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CONT	PADMA	21,563	6900	1998	KOREA	B&W	450	INDIA, guaranteed green recycling
PCC	RYUJIN	14,080	11125	1993	JAPAN	MITSU	405	AS IS Singapore, Green recycling
TANKER	BUNGA KELANA 3	105,784	17091	1998	KOREA	B&W	445	AS IS Singapore, Full gasfree
TANKER	EAGLE AUSTIN	105,426	16749	1998	KOREA	B&W	445	AS IS Singapore, Full gasfree



## V. KEY INDICATORS

### 1) Baltic Index

	2018-07-27	2018-07-20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DI	1676	1689	▼ -13.00	2337	290
BCI	3197	3205	▼ -8.00	4329	161
BPI	1588	1557	▲ 31.00	2096	282
BSI	1035	1023	▲ 12.00	1562	243
BHSI	553	560	▼ -7.00	821	183





## V. KEY INDICATORS

### 2) Bunker Price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Chang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IFO380	473.50	▲13.00	440.00	▲19.00	457.50	▲18.50
IFO180	508.00	▲15.00	472.50	▲14.50	519.50	▲22.00
MGO	656.50	▲14.00	626.00	▲12.00	691.00	▲30.00

❖기준일 : 7월 27일 기준

### 3) Exchange Rate

구분	2018-07-27	2018-07-20	CHANGE
미국달러	1119.60	1131.20	▼-11.60
일본엔(100)	1006.52	1005.91	▲0.61
유로	1303.10	1317.23	▼-14.13
중국위안	165.46	167.19	▼-1.73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 VI. CONTACT INFORMATION

---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 (Personal)

**Leo J.M. Jung (정재문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09

Mob.010-3273-4008

snp@stlkorea.com

leo@stlkorea.com (Personal)

**Claire C.W. Ji (지차욱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1

Mob.010-6625-9785

snp@stlkorea.com

claire@stlkorea.com (Personal)

**Jiwon Song (송지원 사원)**

Tel. 070-7771-6417

Mob.010-4042-9803

snp@stlkorea.com

jiwon@stlkorea.com (Personal)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TLX: K35476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